

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장비 및 재료산업의 나노기술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,800억원 투입

□ 산업자원부는 미래에 기술혁신의 핵심기반이 될 나노기술이 조기에 상업적 성과를 거두어 국내 소재 장비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「나노기술집적센터」 2개소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.

○ 사업목표 : 우리 나라 세계일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“나노소재 재료”와 “나노공정 장비”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지원까지 일괄서비스를 목표로 공통 핵심 연구장비를 갖춘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구축

○ 사업기간 : 2004 ~ 2008(5년)

○ 사업주관 : (나노소재 재료) 1개기관, (나노공정 장비) 1개기관

○ 총 사업비(추정) : 1,800억원(정부 900억원, 민간 900억원)

※ '04년 정부 예산 100억원

□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실용화 속도가 빠른 분야 위주로 기존 투자분야와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연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 전개에 필요한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

“반도체 디스플레이”, “장비 재료” 동반 성장 원년으로

- CVD, Etcher 등 前공정장비의 국내시

장 점유율을 향후 5년 내 5배 이상으로 제고(8%→30% 이상) -

□ 최근 반도체 LCD 세계시장의 19%, 15% 고성장 전망으로 설비투자가 본격화함에 따라, 제조장비 및 공정재료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.

※ 국내의 경우도, 반도체·LCD는 향후 수년간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중

- 반도체부문 : 삼성 70조원, 동부아남 1.3조원

- LCD부문 : 삼성 20조원, LG필립스 12조원

○ 고집적 나노급 반도체시장과 대형화면의 LCD시장이 형성되면서 장비와 재료시장도 기술면과 시장규모 등에서 큰 변화를 맞이함

○ 장비산업은 AMAT(美), TEL(日), ASML(和) 등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전문업체가 LCD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 다각화하는 추세

○ 재료산업은 LCD 글라스 크기가 커지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SKC, LG화학, 제일모직 등 대기업의 시장진입도 활발

○ 중국의 반도체 장비시장 급성장, 대만의 LCD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업체의 해외 진출이 진전되고 있지만,

- 최근에는 선발업체들이 국내업체들에게 국내외에서 특허분쟁을 제기하여 시장진입 봉쇄를 기도하는 사례도 발생

우리 나라 세계일류 산업인
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
뒷받침할 수 있도록
“나노소재 재료”와
“나노공정 장비”를 대상으로
연구개발부터 산업화지원까지
일괄서비스를 목표로 공통
핵심 연구장비를 갖춘
나노기술집적센터를 구축

전자업체 지역별 “친환경경영 순회교육” 실시

□ 산업자원부는 전자산업계의 환경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경영 기법을 전수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“친환경경영 순회교육”을 금년부터 향후 3개년 동안 매년 지역별로 시행할 계획이다.

이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전자산업진흥회 및 국가청정지원센터가 주관사로 참여하며 삼성전자, LG전자,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.

금년은 3월 26일 서울/경기를 시작으로 구미/마산(4월), 대전/광주(5월)에서 “국제환경규제와 대응”, 환경경영과 친환경제품생산”, “정부지원 시책”, 모기업의 환경경영전략”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고, 교육대상자는 참가를 원하는 전기·전자업계 경영자와 실무자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.

□ EU의 WEEE(폐전기전자처리지침, '05년. 8월 시행)와 RoHS(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, '06. 7월 시행)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전기·전자업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경영 기초부터 실무 기법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자업계의 친환경경영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2004년 3월 디지털전자 수출 사상 최대 기록

- 디지털TV 수출주력품목으로 부상 -

□ 3월중 디지털전자 輸出은 전년동월 대비 43.4% 증가한 82억 7,600만불, 輸入은 16.5% 증가한 45억 7,200만불을 기록하여 貿易收支 37억 400만불 黑字 시현

* 수출증감률(%) : ('03.1/4) 17.6 → (2/4) 10.1 → (3/4) 25.9 → (4/4) 32.7→('04.1) 31.7 → (2월) 51.6 → (3월) 43.4

* 수입증감률(%) : ('03.1/4) 26.9 → (2/4) 13.2 → (3/4) 12.4 → (4/4) 18.7→('04.1) 17.3 → (2월) 24.2 → (3월) 16.5

* 무역수지증감률(%) : ('03.1/4) 3.9 → (2/4) 5.4 → (3/4) 49.4 → (4/4) 56.8→('04.1) 53.0 → (2월) 102.6 → (3월) 100.3

□ 디지털TV(CRT TV, LCD TV, 프로젝션 TV, PDP TV) 輸出은 3월중 1억 3,6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88.9% 증가

- 특히, 이번달에 큰 폭의 수출신장을 보인 것은 프로젝션 TV로 107.7%(5,400만불) 급증하였으며, 이어 LCD TV가 72.1%(3,100만불)에 달하였음

* 수출실적 및 전망 : ('01)268백만불 → ('02)974백만불 → ('03)1,196백만불 → ('04)2,100백만불

산업자원부는 전자산업계의 환경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경영 기법을 전수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“친환경경영 순회교육”을 금년부터 향후 3개년 동안 매년 지역별로 시행할 계획이다.